

[재생에너지]

GE 실적 및 국내 풍력업체 시사점

안주원 미드스몰캡/건설 02-709-2655 / joowonahn@ds-sec.co.kr

2023.01.26

GE 재생에너지 부문, 풍력 터빈 수주 뚜렷하게 증가

지난 1월 24일 GE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주목할 점은 풍력터빈의 수주 증가이다. 2021년부터 끊임 예정이었던 PTC(전력생산 세액공제) 영향이 지속되면서 터빈 수주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8월에 통과된 IRA법안 효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3분기 5.3GW를 고점으로 2022년 2분기 0.9GW까지 빠졌던 수주는 3분기 2.6GW, 4분기 3.2GW로 증가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도 2022년 4분기는 5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북미 지역(2021년 기준 미국 매출 비중 46%)에서의 수요 확대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GE는 재생에너지 부문 실적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과 고수익성 중심의 수주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3년에는 뚜렷한 수익성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육상풍력은 올해 북미 지역에서의 신규수주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해상풍력 역시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해상풍력 매출액 약 5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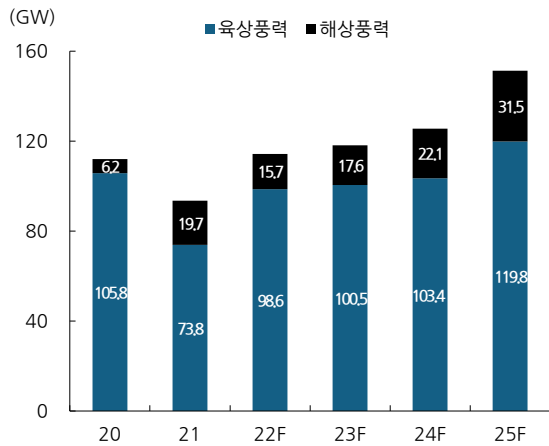
미국 풍력 신규 설치규모 올해가 제일 낮으며 2024년부터 급증할 전망

2023년 미국 풍력 시장은 10GW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설치규모를 달성할 전망이다. 2024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F 15GW → 25F 19GW) 이는 2024년이 IRA법안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인허가부터 건설까지 오래 걸리는 풍력사업 특성상 관련 업체들의 수주 및 실적은 올해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절대 규모로는 육상풍력이 크지만 그 동안 미국에서 해상풍력 발전 설치가 없었던 만큼 강력한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해상풍력에서의 성장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약 1GW인 미국 해상풍력 신규 설치규모는 2025년 6GW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풍력업체 실적 개선 가시성 더욱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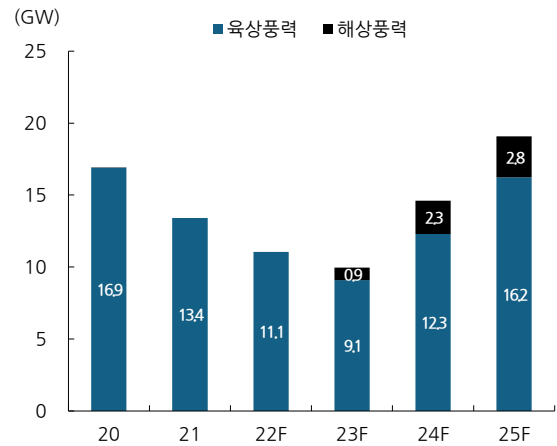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 터빈사들의 수주가 지난해 말부터 반등하고 있어 국내 풍력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씨에스윈드와 씨에스베어링 실적은 수주 감소 및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부진했으며 2023년은 관련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어 매출액과 이익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씨에스베어링은 GE향 매출 비중이 약 70%로 가장 크며 미국 풍력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만큼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실적은 매출액 1,292억원(+161.2%, YoY)과 영업이익 83억원(흑자전환)으로 추정한다. 또한 신규 터빈사로의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베어링 제품들에 대한 승인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장기 성장성도 부각될 전망이다. 씨에스윈드는 미국 생산시설을 통해 IRA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조 단위의 공급계약 건들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는 해상 매출액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두 업체 모두 좋아지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림1 글로벌 연간 풍력 신규 설치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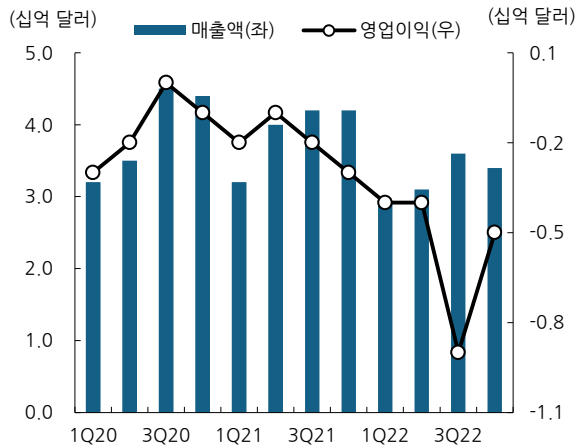
자료: IE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연간 풍력 신규 설치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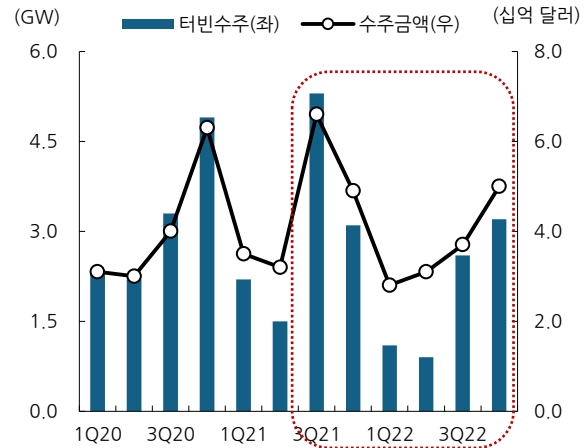
자료: IEA,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GE 재생에너지 부문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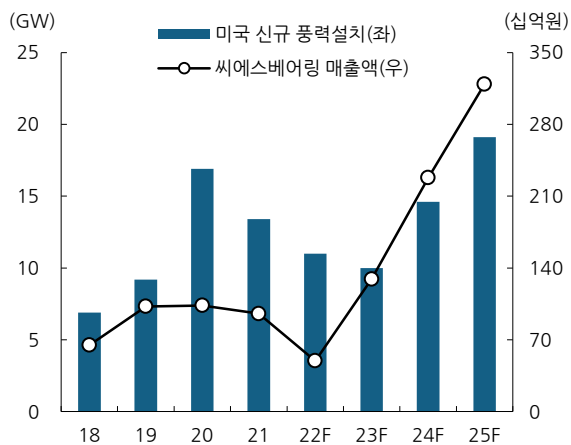
자료: G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GE 재생에너지 부문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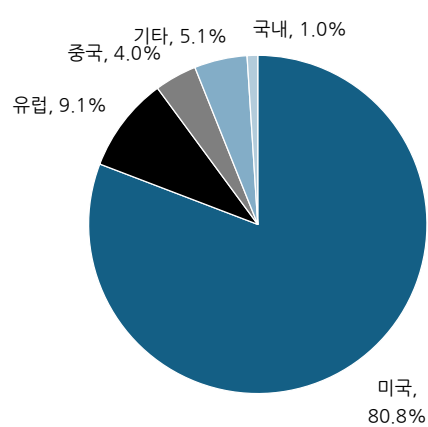
자료: GE,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미국 풍력시장과 씨에스베어링 매출액



자료: 씨에스베어링,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씨에스베어링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씨에스베어링,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